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A]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 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중략)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꼭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았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똥똥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짓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레,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았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는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택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쫓겨난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쫓겨나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 거기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 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찌 그렇게도 변하는지요? 그 술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열 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찌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라.

㉔“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부각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상상적 공간을 묘사하여 진행되는 사건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건의 요약적 진술을 통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갈등 상황을 세부적으로 서술하여 부정적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인물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의 반전을 암시하고 있다.

2. ‘그’와 ‘그 처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처녀’는 떠났던 고향으로 되돌아오면서 가족과 재회하여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있군.
- ② ‘그’는 가족들을 등지고 서간도로 떠난 후 자신의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군.
- ③ ‘그’와 ‘그 처녀’는 서로의 재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군.
- ④ ‘그’가 열일곱 살에 겪은 사건은 ‘그 처녀’가 열일곱 살에 겪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군.
- ⑤ ‘그’가 겪은 서간도 이주와 ‘그 처녀’가 팔려 간 사건은 그들의 고향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군.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오랜만에 다녀온 고향의 모습에서 비롯된 ‘그’의 답답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다.
- ② ㉡: ‘나’가 맞장구를 치는 말로서 ‘그’에 대해 공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③ ㉢: 예전에 살던 ‘동리’의 변화에 대해 ‘그’의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다.
- ④ ㉣: ‘그’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나’의 궁금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 ⑤ ㉤: 불편한 이야기를 건네는 ‘나’에 대해 ‘그’가 거부감을 드러내는 말이다.

4. 노래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토가 신작로로 변했다는 ‘노래’의 내용은, 신세타령 속에서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던 시절로 표현되는 인물들의 과거가 현재에 비해 더 평

화로운 삶이었다는 것과 상관이 있겠군.

- ② 말마디나 하는 친구가 감옥소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못 살겠다’는 말로 인해 고향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친구의 부자유한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③ 담뱃대나 떠는 노인이 공동묘지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무능력한 구세대 때문에 피폐해진 고향을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짓혀 놓은’ 듯한 모습으로 그려 낸 것과 상관이 있겠군.
- ④ 유곽으로 가는 계집을 떠올리는 ‘노래’의 내용은,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라고 탄식하는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상실감을 극복하는 모습을 다룬 ‘노래’의 전체 내용은, 노래를 부르는 인물이 과거로 회귀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대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군.

현진건, 「고향」

{해제}

이 작품은 일제의 수탈 아래 조선의 농촌 공동체가 황폐해지고, 그 속에서 쓸쓸하고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술자 ‘나’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보게 되고, 우리 민족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비록 극적인 사건의 전개나 인물 간의 갈등 관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 전개를 통해 당대 조선 사회와 민족의 삶을 고발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민족의 집단 정서를 담은 ‘그’의 노래를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중의 참혹한 삶에 대한 고발

{전체 줄거리}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여 주는 ‘그’와 함께 앉지만,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를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그’에게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향을 떠나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부모를 잃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또한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자신과 혼담이 있었지만, 부모에 의해 유곽에 팔려 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도 듣게 된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일제에 대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 ‘그’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른다.

1. 3

{해설}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는 ‘그’의 가족이 서간도로 이사를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등 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처한 힘겨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은 나오지 않는다.

② ‘그’와 가족들이 처한 삶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상상적 공간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갈등 상황을 세부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그’와 가족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는 서술되어 있지만, 이 변화에 맞추어 인물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2. 5

[해설]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그’가 열일곱 살에 가족들과 서간도로 이주한 것과 ‘그 처녀’가 열일곱 살에 유곽으로 팔려 간 것은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지주 행세로 인한 가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향이 그들에게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될 수 없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그 처녀’는 열일곱 살에 유곽으로 팔려 간 후 고향에 되돌아왔을 때 집도 부모도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볼 수 없다.

㉒ ‘그’는 열일곱 살에 가족들과 함께 서간도로 이사를 갔으므로 가족들을 등진 것이 아니다.

㉓ ‘그’와 ‘그 처녀’가 재회한 시기에는 이미 마을이 모두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재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다.

㉕ ‘그 처녀’는 ‘그’보다 두 살이 많으며, ‘그’의 열일곱 살에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 처녀’의 열일곱 살에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뒤에 일어났으므로 원인이 될 수 없다.

3. 5

[해설]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㉔은 일제 강점기 ‘그’와 ‘그 처녀’가 살아온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슬픔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그’의 거부감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고향은 사람도 개도 없고, 살던 집터도 사라진 상태이다. 한편, 인물이 ‘흥’이라며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곧이어 한숨을 쉬는 것으로 보아 답답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㉒ ‘고향이 텅 없어졌더마.’라는 말에 ‘그렇겠지요.’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으며,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에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㉓ ‘혹 구경했는지요?’는 자신은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고향의 변화에 대한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다.

④ ‘그’가 ‘그 사람’과 까닭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 되묻는 질문이므로 ‘그’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함을 드러낸 말이다.

#### 4. 1

[해설]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전토가 신작로로 변했다는 노래의 내용은 전토에서 생존을 해나가던 과거의 삶이 더 나은 삶이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역둔토를 파먹고’ 살던 과거의 기억은 현재와 달리 평화롭게 살아갔던 기억이다. 따라서 노래의 내용은 과거가 현재보다 더 평화로운 삶이었다는 것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말마디나 하는 친구가 감옥소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일제의 감시하에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뜻한다. ‘못 살겠다’는 소리가 자주 오르내린 것은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부당한 행세 때문에 가난으로 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노래의 내용이 고향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친구의 부자유한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담뱃대나 떠는 노인이 공동묘지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우리의 따뜻한 이웃들이 죽어 민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양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담뱃대나 떠는 모습을 무능력한 구세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때문에 고향이 폐허해졌다고 볼 수 없다.

④ 유곽으로 가는 계집을 떠올리는 노래의 내용은 ‘그 처녀’가 유곽으로 팔려 가던 이야기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그 처녀’의 불행은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라고 탄식하는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⑤ 노래의 전체 내용은 상실감을 극복하는 모습을 다룬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대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없다.